

## 기상과 천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

- 국립밀양기상과학관·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‘어린이날 페스티벌’ 개최

- 부산지방기상청(청장 김현경)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최영태)은 2023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밀양기상과학관·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야외광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‘어린이날 페스티벌’ 행사를 개최한다.
- 이번 행사에서는 바람개비 만들기, 우산 만들기, 우주 골프, 에어로켓 쏘기, 국궁 활쏘기 등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7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.
- 또한, 국립밀양기상과학관에서는 기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엉뚱 발랄 과학실험실, 찾아가는 체험형 기상해설(날씨 공방) 등 특별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자세한 내용은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.
-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장은 “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기상과 천문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원덕진 (051-718-0420)
		담당자	주무관	송영철 (055-981-7374)
<공동>	밀양시시설관리공단 우주문화팀	책임자	팀 장	박근홍 (055-359-4721)
		담당자	주 임	김도일 (055-359-4723)